

너그럽게 인정하면 된다

남의 잘못이나 그릇된 행동을 눈여겨보지 말고, 자신의 과오나 그릇된 행실을 살피라. 이렇게 하면 상대와의 다툼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그대의 근심, 걱정도 소멸될 것이다.

- 예수님도 “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은 잘 본다”라고 하셨다.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남의 단점은 크게 부각하고 자신의 단점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합리화하려고 한다.